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에 대해 서술하시오.

갑: 법(法)은 언상(言像)이 없으나, 언상을 떠난 것은 아니다. ... (중략) ... 대경(大經)을 전수받았지만, 관문(觀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비록 강주(講主)라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

을: 미혹으로부터 깨치는 것이 돈(頓)이요, 평범에서 전환하여 성(聖)을 이루는 것이 곧 점(漸)이다. 얼어붙은 못이 물임을 알았다고 얼음이 물로 변한 것은 아니다.

◎ 학생 답안

갑의 경우 관(觀)은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을은 부처의 말씀과 마음은 결코 다른 것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돈오(頓悟) 이후에도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갑과 을은 ()와/과 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후략) ...

6. 다음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우리가 고도의 기술과 함께 들어서게 된 집단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영역은 윤리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아무도 살지 않는 미개척지와 같다. 이러한 윤리적 진공 상태에서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범위의 위험,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불길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 (이)라고 부른다.

○ 우리에게서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다. 무엇보다도 악은 눈에 잘 보인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의식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다. ... (중략) ...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미래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 (중략) ... ()은/는 선의 탐구에 있어서 최종적 수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익한 출발점임에는 틀림없다.

7.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신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각자는 신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어떤 존재도 그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또는 자신의 존재를 제거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소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한다. 각자의 주어진 본성에서 여러 가지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자신의 일정한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을/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각 존재의 주어진 또는 현실적인 본질을 구성한다.

8.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서로 갈등하는 심지어 불가공약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에 의해 파편화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어떻게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앞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 (중략) ...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것이 제시하는 사회적 화합론에 대한 네 가지 반론들을 다루었다. 이 중 두 가지는 특히 중요하다. 하나는 회의주의와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정의의 원칙에 대한 동의를 언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가지 반론은 모두 합당한 교설들 간의 ()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합당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수립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은/는 정치적 덕목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정치관과 포괄적 교설 간의 조화를 통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다음은 두 도덕 교사의 대화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학습 내용 및 환경’과 관련된 사항 2가지를 서술하시오. [4점]

갑: 일상의 판단들은 추론보다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은 도덕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을: 최근 도덕 심리학에서도 그 즉각적인 도덕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문제 사태에 자동적이고 암묵적으로 반응하는 도덕적 직관 능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갑: 이제 도덕교육에서도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직관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덕 교사들이 먼저 정교한 도덕적 추론 능력과 적절한 도덕적 직관 능력을 겸비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겠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초보자가 아닌 ()이/가 되고, 여기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을: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합적 윤리 교육 모델’을 강조한 나바에즈(D. Narvaez)는 학생들을 ()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의 특징과 관련해 4과정 모형을 제안하고, 각 과정마다 7가지 윤리적 기술들을 제시하였습니다.

10. 다음은 두 도덕 심리학자의 대화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훈육’에 초점을 맞추어 밑줄 친 부분을 적용한 예시를 2가지 서술하시오. [4점]

갑: 도덕 발달은 인지 발달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지 발달의 단계는 문화적 차이와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을: 그래요? 그러나 나는 도덕 발달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과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갑: 내가 정서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덕 판단에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 측면의 질은 인지 구조의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을: 나도 인지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덕 원리는 희생자, 사건, 기억, 행동 등에 대한 공감적 정서가 포함된 설명들과 결합될 때 더욱 활성화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인지의 활성화 방식을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감의 발달을 위한 교육 방법의 핵심은 귀납적 훈육(inductive discipline)이라고 생각합니다.

11.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이 용어를 활용하여 갑의 주장에 대한 을의 비판을 서술하시오. [4점]

자기만을 위한 입장을 취하여 털 한 오라기를 뽑아 천하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겠다는 선생의 주장은 군주(君主)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선생께서 그렇게 비판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내 생각은 천하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것이며, 간단하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다음 갑, 을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갑의 관점에서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활용하여 ‘선의지’ 개념을 정의하고, ‘선의지’와 () 안의 개념을 모두 적용하여 을의 밑줄 친 견해를 비판하시오. [4점]

갑: 선의지는 우리 행위의 전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맨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 밖의 모든 가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선의지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 개념을 다룰 필요가 있다. () 개념은 주관적인 제한과 방해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의지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과 방해는 그 선의지의 개념을 은폐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를 통해 선의지 개념을 두드러지게 하고, 더 밝고 빛나게 해준다.

을: 우리가 하는 행위의 99%는 의무감과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그 행위가 의무 규칙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런 행위는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감과 같은 동기를 통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의 가치를 판별할 수는 있어도,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별할 수는 없다. 동기와 그 행위의 도덕성은 아무 상관도 없다. ... (중략) ... 물에 빠진 동료 구해 주는 행위는 그 동기가 의무에서였건 아니면 그런 수고를 통해 보상을 받으리라는 희망에서였건 그것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옳다.

13. 다음 갑, 을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을의 입장에서 밑줄 친 ㉡과 같은 시도가 오류인 이유를 설명한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갑과 을의 주장을 <작성 방법>에 따라 각각 서술하시오. [4점]

갑: '선(good)'이라는 단어는 첫째, 분석할 수 없는 단순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둘째, 분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양자가 아니라면 셋째, 그것은 어떠한 속성도 나타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 중 둘째와 셋째의 경우가 각각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첫째의 경우를 받아들여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것이 좋다(선하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사물에 대하여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셋째의 경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둘째의 경우에 따라 선을 정의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는 (㉠)을/를 범하게 된다.

을: 내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도덕 체계들에서 저자들은 한 동안은 일상적 추론을 진행하고, 신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인간사에 관해 관찰한 다음, 갑자기 ㉡ 명제들을 명제의 일반적 술어인 '이다'와 '아니다' 대신에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로 진술한다. ... (중략) ... 그러나 저자들은 대개 이런 점에 주의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독자들이 이 점에 주의할 것을 권하며, 나는 이 조그만 주의가 도덕에 관한 통속적 체계를 모두 전복시키리라고 확신한다. ... (중략) ... 그러면 이제 덕과 악덕의 구별과 같은 ㉢ 도덕적 구별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 <작성 방법> —

- 선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갑의 주장을 서술할 것.
- 덕과 악덕에 대한 도덕적 구별이 무엇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을의 주장을 서술할 것.

14. 다음은 서양 중세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의 관점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그것의 제1원리를 각각 쓰고, ㉠의 역할을 인간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4점]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며 신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부여한 인간의 본질 또는 이상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범위에서 우리는 신의 영원한 법을 인식할 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지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을 우리는 (㉠) (이)라 부른다. ... (중략) ... 선은 목적의 본성을 갖고 악은 그 반대의 본성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선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그 반대는 악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의 계율들의 질서는 자연적 경향성의 질서를 따른다.

<수고하셨습니다.>